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소영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Impact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So-Young Pak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 약 돌봄은 간호제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생 199명이며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성찰($\beta=0.10, p<.05$), 변혁적 리더십($\beta=0.13, p<.05$), 자아상태별로는 양육적 부모(NP) 자아($\beta=0.27, p<.001$)와 자유 어린이(FC) 자아($\beta=0.22, p<.001$), 비판적 부모(CP) 자아($\beta=-0.24, p<.001$)와 순응적 어린이(AC) 자아($\beta=-0.35, p<.001$)가 돌봄 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돌봄 능력의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해 자아성찰 촉진, 자아상태의 긍정적 측면 개발 및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융복합, 간호대학생,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Abstract Caring is essential ability for nursing provid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act of self-reflection, ego stat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199 nursing students was obtained from a university in Gyeonggi Province.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indicate that self-reflection($\beta=0.10, p<.05$), transformational leadership($\beta=0.13, p<.05$), NP($\beta=0.27, p<.001$), FC($\beta=0.22, p<.001$), CP($\beta=-0.24, p<.001$) and AC ($\beta=-0.35, p<.001$) were the most consistent predictors of caring ability and explained 54.0%.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self - reflection, positive aspect of ego stat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improve car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Nursing students,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ring 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각 개인의 고유한 독자적 특성과 상황을 염두 해 두고 안위를 도모하며 돌봄을 실행하는 실천학문[1]이다. 간호학에서 '돌봄'은 의학과 간호학을 구별하는 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18.

*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Pak(09525@shinhan.ac.kr)

Received September 21,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October 5,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질적 요소[2]로 단순히 간호제공자가 가져야 할 정서나 관심 뿐 아니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구체적 행위이며, 간호제공자의 정서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환자 중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환자와 연결되고 함께 있어주는 것과 같이 돌봄 관계 속에서 실현[3]되므로 간호제공자에게는 대상자와의 돌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돌봄 능력이 필수적이다.

돌봄 관계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알 수 있다[4]. 따라서 간호제공자들의 자기인식은 돌봄 능력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마음상태나 자신의 생각 및 감정 등을 탐색해 보는 자아성찰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자아성찰(self-reflection)은 상황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을 통해 탐색과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5]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게 하며 문제해결이나 변화를 향한 방향성을 갖게 하여 자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이끌어 낸다. 즉, 자아성찰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본질적 인식을 통해 이해와 인정, 공존의 방법 모색에 적극성을 갖게 되고 이는 돌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성찰을 통한 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동기유발, 자신감, 자기 효능감, 만족도 [6,7]에 영향을 주며 돌봄에 대한 인지 및 경험이 돌봄 능력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8]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아성찰이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돌봄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제공자는 자신의 의사소통 패턴이나 성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질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성질을 결정[9]하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간은 일관성 있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관된 느낌과 경험의 패턴인 자아상태[10]를 사용한다. 자아상태는 각기 별개의 독립된 심리적 기능수준을 나타내는 3가지 구조적 자아상태인 부모(Parent:P), 어른(Adult:A), 아동(Child:C)으로 구분되며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비판적 부모(Critical Parent:CP), 양육적 부모(Nurturing Parent:NP), 자유어린이(Free Child:FC), 순응적 어린이

(Adapted Child:AC), 어른(Adult:A)자아로 나눈다. 이러한 자아상태는 그들 간의 효율적 기능이 부족할 때 우울, 혼돈 같은 정신적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인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1]. 이에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는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경험에 따라 변화 가능하므로[12]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를 파악하고 자아상태와 돌봄 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자아상태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은 특정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원을 동원하여 팔로워들을 동기부여하고 참여시켜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간호제공자가 돌봄 관계 속에서 간호대상자의 자기인식, 자기존중, 자기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리더십 발휘과정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 중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도록 고무시키며 구성원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13]이다. 궁극적으로 간호대상자의 자가간호 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 수행을 위해서는 간호제공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간호의 본질이자 핵심인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돌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제공자의 일반적인 특성, 환경적 특성, 돌봄 경험, 돌봄 인지 등이 확인되었다[8].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제공자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리더십인 돌봄 능력과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자기성찰, 리더십과 돌봄 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도, 융복합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수준을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과 돌봄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간호대학 중 편의 표출한 1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99명이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양측검정,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8개를 적용하여 산출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 160명이었고, 본 연구 대상자수는 199명으로 최소 대상자 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학과에 설명 후 협조를 얻어 설문을 배포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익명 및 비밀보장, 연구철회 가능성을 명기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기호화하여 기록 관리하였다. 설문은 2019년 6월 18부터 6월 22일까지 240부를 배포하여 총 207부가 회수(86.3%)되었으며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 6부, 부정확한 응답 설문 2부를 제외한 199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 자아성찰(Self-Reflection)

자아성찰은 Hwang[14]이 개발한 자아성찰 척도(Self-Refl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탐색 5문항, 자기이해 5문항, 타인탐색 5문항, 타인이해 5문항으로 4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성찰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Pak의 연구[15]에서는 .92,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 자아상태(Ego State)

자아상태는 Lee가 개발한 검사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Song[1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5가지 기능적 자아상태 유형별(비판적 부모자아, 양육적 부모자아, 성인자아, 자유어린이 자아, 순응적 어린이 자아)로 10개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상태가 많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ong의 연구[16]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6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였다.

●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은 Bass와 Avolio가 고안 한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MLQ) Form-5X를 참조하여 Park[17]이 간호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카리스마 12문항, 지적자극 4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17]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 돌봄 능력(Caring Ability)

돌봄 능력은 Coates가 개발한 돌봄 효능감 척도(Caring Efficacy Scale, Form B)를 Lee와 Pak[18]이 한국적 실정에 맞게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30문항으로 긍정문항 15개, 부정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Likert 6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Pak의 연구[8]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셋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넷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199명 중 79.4%는 여자이고, 학년은 1학년이 50.2%, 2학년이 12.6%, 3학년이 19.6%. 4학년이 17.6%였으며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52.8%였다. 가족과 동거여부는 82.9% 동거상태였으며 가족 수는 4명이 54.3%, 5명이 27.6%로 4.5명이 가장 많았다. 봉사과 관련해서는 199명 전원 봉사경험이 있었으며 1개월 미만인 20.6%, 1년 이상이 31.2%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상태,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은 Table 2와 같다. 자아상태는 NP(38.40±5.32), FC(33.43±5.20), A(32.40±5.12), AC(29.60±6.61), CP(26.01±6.01)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

Table 1. Differences in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ar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9)

Categories	n(%)	Self-reflection M±SD	Ego-state M±S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SD	Caring ability M±SD
Gender					
Male	41(20.6)	3.88±0.66	31.94±2.49	3.64±0.59	4.08±0.51
Female	158(79.4)	3.72±0.50	32.07±3.29	3.62±0.38	4.08±0.33
t (p)		1.50(.140)	-0.23(.822)	0.26(.837)	-0.01(.989)
Grade					
1	100(50.2)	3.77±0.50	31.78±2.93	3.61±0.33	4.14±0.39
2	25(12.6)	3.76±0.50	32.74±2.83	3.72±0.40	4.03±0.41
3	39(19.6)	3.78±0.62	32.37±3.95	3.61±0.61	4.01±0.43
4	35(17.6)	3.66±0.60	31.90±2.91	3.61±0.45	4.01±0.53
F (p)		0.44(.725)	0.81(.492)	0.47(.705)	1.47(.224)
Religion					
Yes	94(47.2)	3.76±0.46	32.02±3.05	3.62±0.37	4.11±0.44
No	105(52.8)	3.75±0.61	32.06±3.22	3.63±0.47	4.05±0.42
t (p)		.09(.929)	-.10(.922)	-.17(.869)	1.02(.310)
Living together					
Yes	165(82.9)	3.75±0.55	32.20±3.17	3.65±0.39	4.08±0.43
No	34(17.2)	3.76±0.53	31.25±2.88	3.53±0.58	4.05±0.41
t (p)		-.12(.906)	1.62(.108)	1.45(.150)	.43(.668)
Number of family					
2	9(4.5)	4.13±0.92	29.91±0.45	3.53±0.95	3.95±0.78
3	19(9.5)	3.61±0.57	30.95±0.51	3.58±0.23	4.16±0.43
4	108(54.3)	3.76±0.54	32.14±0.43	3.62±0.39	4.05±0.40
5	55(27.6)	3.74±0.43	32.44±0.43	3.68±0.43	4.11±0.42
6	8(4.0)	3.66±0.62	33.03±0.62	3.55±0.42	4.22±0.42
F (p)		1.52(.199)	2.10(.082)	0.49(.745)	0.77(.544)
Service period (month)					
< 1	41(20.6)	3.67±0.63	31.33±2.86	3.53±0.38	3.95±0.38
1≤-<3	43(21.6)	3.76±0.54	31.95±3.40	3.61±0.54	4.14±0.48
3≤-<6	33(16.6)	3.76±0.52	31.65±2.42	3.62±0.48	4.06±0.47
6≤-<12	20(10.1)	3.57±0.46	32.22±3.68	3.64±0.40	4.05±0.48
≥12	62(31.2)	3.87±0.54	32.72±3.21	3.70±0.33	4.14±0.37
F (p)		1.44(.224)	1.43(.225)	1.06(.379)	1.57(.184)

십은 5점 만점에 3.73점(±0.49), 3.63점(±0.43)이었고, 돌봄 능력은 6점 만점에 4.08점(±0.43)이었다. 자아성찰의 하위영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 탐색점수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해 점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자기보다는 타인의 탐색이나 이해 점수가 더 높았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에서는 개별적 배려(3.88±0.45), 카리스마(3.51±0.43), 지적자극(3.49±0.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aring Ability

(N=199)

Variables	M±SD
Ego-status	31.97±3.06
CP	26.01±6.01
NP	38.40±5.32
A	32.40±5.12
FC	33.43±5.20
AC	29.60±6.61
Self-reflection	3.73±0.49
Self-exploration	3.79±0.85
Self-understanding	3.55±0.60
Other-exploration	3.88±0.58
Other-understanding	3.73±0.6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63±0.43
Charisma	3.51±0.48
Intellectual Stimulatio	3.49±0.62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3.88±0.45
Caring ability	4.08±0.43

CP = Critical Parent, NP = Nurturing Parent A = Adult, FC = Free Child, AC = Adapted Child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학년, 종교, 가족과의 동거여부 및 가족 수, 봉사기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 대학생들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 돌봄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자아성찰($r=.38, p<.001$), 변혁적 리더십($r=.47, p<.001$)과 돌봄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상태와 돌봄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NP($r=.48, p<.001$), A($r=.29, p<.001$), FC($r=.19, p<.01$)는 양의 상관관계, CP($r=-.42, p<.001$)와 AC($r=-0.45, p<.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양육적 부모자아, 성인자아, 자유어린이 자아가 높을수록 돌봄 능력이 높아지는 반면, 비판적 부모자아나 순응적 어린이 자아가 높을 경우 돌봄 능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3.4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 대학생들의 자아성찰, 자아상태,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457~.810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1.234~2.191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782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없었고, 잔차분석 결과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자아성찰을 잘 할수록($\beta=0.10, p<.05$),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beta=0.13, p<.05$) 돌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별로는 양육적 부모(NP) 자아($\beta=0.27, p<.001$)와 자유 어린이(FC) 자아($\beta=0.22, p<.001$)가 높을수록, 비판적 부모(CP) 자아($\beta=-0.24, p<.001$)와 순응적 어린이(AC) 자아($\beta=-0.35, p<.001$)는 낮을수록 돌봄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06, p=.351$).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과 자아상태 중 성인자아를 제외한 비판적 및 양육적 부모자아, 자유 및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돌봄 능력의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aring Ability (N=199)

Variables	ES					S R	T L	C A
	CP	NP	A	FC	AC			
CP	1							
E S	NP	-.19***	1					
	A	.16*	.27***	1				
	FC	.30***	.16*	.04	1			
	AC	.44***	.07	-.16*	.12	1		
	SR	-.12	.38***	.42***	.03	-.08	1	
TL	-.08	.42***	.52***	.14*	-.20***	.54***	1	
CA	-.42***	.48***	.29***	.19*	-.45***	.38**	.47**	1

*p<.05, ** p<.01, *** p<.001

ES = Ego state, SR = Self-Reflection, TL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 = Caring Ability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aring Ability (N=19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95	0.256		10.51	.000***	
Ego-status	CP	-0.17	0.05	-0.24	-3.50	.001**
	NP	0.22	0.05	0.27	4.03	.000***
	A	0.05	0.06	0.06	0.94	.351
	FC	0.19	0.04	0.22	4.19	.000***
	AC	-0.23	0.04	-0.35	-5.77	.000***
Self-reflection	0.08	0.05	0.10	1.74	.044*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14	0.06	0.13	1.99	.048*	

R²=.56 Adjusted R²=.54 , F=30.39, p=.000**

*p<.05, ** p<.01, *** p<.001

4. 논의

돌봄은 간호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학생의 자아성찰을 측정한 Cho[19]와 Pak[15]의 3.73점과 동일하며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아성찰을 측정한 Hwang[14]의 연구의 3.77점 보다 낮았다. 자아성찰은 자신과 타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 및 Cho[19]와 Pak[15], Hwang[14] 연구 모두에서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탐색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 감정, 생각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기와 타인에 대해 알아나가기려는 성향이 있다는 주장[14]과 일치한다.

대상자의 자아상태는 NP, FC, A, AC, CP 순으로 나타났다. 5가지 자아상태 중 가장 강한 자아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을 만들어 내는데 NP가 높을수록 모성적이고 온화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동정적이며 타인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11]. Woo[11]에 따르면 NP(38.40±5.32), FC(33.43±5.20), A(32.40±5.12), AC(29.60±6.61), CP(26.01±6.01)의 분포 형태의 이코그램은 NP와 FC가 높은 M형(명랑 낙관형)이며 M형 중에서 A가 높은 수준(완만한 명랑 낙관형)이다. 완만한 명랑 낙관형은 현실감각이나 판단력도 갖고 있고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며 인간미도 풍부해서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가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환영받는다. 그러나 Dusay[20]가 제시한 이상적인 이코그램인 중형(대두형)이나 수평형(편평형)과 비교해 볼 때 A, CP, AC가 낮는데 A가 낮은 것은 합리성과 논리성이 다소 부족

하고 즉흥적임, CP가 낮은 것은 책임감과 원칙준수가 다소 부족함을, AC가 낮다는 것은 독선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NP가 가장 높고 CP가 가장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생[21-23] 및 간호사[24-26]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는 CP의 자아상태에 비해 도와주고 지원하며 안심시키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NP의 자아상태가 간호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7].

반면, 유치원 교사[28], 사서교사의 자아상태[16]를 확인한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사서교사는 CP가 높고 FC가 낮게, 유치원 교사는 NP는 높고 FC가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유치원 교사에서 NP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호작용과 돌봄이나 헌신과 같은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돌봄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자기 감정을 억제해야하기 때문에 FC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의 자아상태에서 CP와 A가 낮은 특성은 수동이고 의존적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간호수행과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간호현장 적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CP나 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변혁적 리더십은 5점 만점에 3.66점으로 동일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의 연구[33]에서 나타난 3.6점과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 한 연구[32] 보다는 낮았다. 이는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 교육과정에서 리더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은 6점 만점에 4.08점으로 동일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k의 연구[8]에서 나타난 4.23점 보다는 낮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8]인 4.04점 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이나 미국의 간호대학생[29]나 간호사[30]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5.09점, 5.3점 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간호교육이 돌봄 모델 보다는 의학모델에 비중이 두기 이루어지며 임상 현장 또한 간호행위가 투약, 처치 등과 같은 의료행위와 처방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전문적 실무 능력이 돌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8].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돌봄 능력에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은 자아상태였다. 5가지 자아상태 중 성인 자아를 제외한 AC, NP, CP, FC가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AC($\beta=-0.35, p<.001$)와 CP($\beta=-0.24, p<.001$)가 낮을수록, NP($\beta=0.27, p<.001$)와 FC($\beta=0.22, p<.001$)가 높을수록 돌봄 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상태와 돌봄 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NP, FC의 자아상태가 대인관계 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AC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7]과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각의 자아상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갖는데 AC는 감정억제, 신중, 적응, 타협, 겸손, 양보의 긍정적 측면과 폐쇄적, 지연, 과민적, 의존적인 부정적 측면을, CP는 도덕적, 규범적, 이상 추구의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강압적, 편견적인 부정적 측면을, NP는 보호, 육성, 친절, 지지,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의 긍정적 측면과 희생적, 맹목적, 과보호의 부정적 측면을, FC는 풍부한 애정표현, 자발적, 행동적인 긍정적 측면과 순수반항, 자유, 방종, 충동적인 부정적 측면을 나타낼 수 있다[20]. 따라서 이타성, 민감성, 공감, 수용, 배려 및 능동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돌봄의 특성과 AC, CP는 거리가 먼 반면 NP와 FC는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AC와 CP가 비활성화 될수록, NP와 FC가 활성화 될수록 돌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상태 뿐만 아니라 자아성찰도 돌봄 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beta=0.10, p<.05$). 자아성찰과 돌봄 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자아성찰과 자기효능감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8,31] 및 자아성찰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15]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 또한 돌봄 능력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beta=0.13, p<.05$).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32]는 물론 긍정적 심리자본, 심리적 안정감, 건강과 웰빙[33], 업무 의미와 몰입[34]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 제시,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가치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높은 조직성과 달성 및 개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33]이며 리더십 발

취범위에는 타인 뿐 아니라 자신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목표인 돌봄 능력 함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상태,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 능력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자아성찰 촉진, NP, FC 및 A의 긍정적 측면 개발 및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임상실습 성찰일지 및 봉사일지 작성, 토의 및 토론, 질문법, 대화법, 세마나 및 발표 등)들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의학 중심의 교육과정에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융복합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한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가지며 간호제공자의 자아상태,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에 따른 간호제공자가 판단하는 돌봄 능력에 대한 평가로 간호대상자 느끼는 돌봄 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간호대학생들의 돌봄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과 교과목 융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자아상태,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에 따른 환자가 느끼는 돌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여 그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돌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상태,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이 돌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아상태, 자아성찰, 변혁적 리더십이 돌

봄 능력에 주요한 영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해 자아성찰 촉진, 자아상태의 긍정적 측면 개발 및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E. Y. Hong. (2013). *Caring and philosophy*. Seoul: Soommoonsa
- [2] J. Watson. (2006). Caring theory as ethical guide to administrative and clinical practices. *JONA'S Healthcare Law, Ethic and Regulation*, 8(3), 87-93.
DOI : 10.1097/00006216-200601000-00008
- [3] Bevis. E.(1988). Caring a life force. In: Leininger M. editor. *Caring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 (pp. 45-59). Detroit : Wayne University Press.
- [4] J. H. Woo.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Factors in Transactional Analysi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 Min University, Seoul.
- [5] M. Ardel.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52(1), 15-27.
- [6] H. J. Paik. (2004). Educational evaluation of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through open laboratory self-directed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1(1), 13-20.
- [7] S. O. Kim. (2017). Effects of self-directed practice through writing self-reflective journal on basic nursing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elf-efficacy and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293-306.
DOI : 10.14400/JDC.2017.15.10.293
- [8] S. Y. Pak. (2015).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improving caring abilities in clinical practice and the effects of the program's appl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9] S. T. Lee. (2017). *Human relation*. Gyeonggi: Yangsungwon.
- [10] Beme. E. (1966).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Grove Press
- [11] J. H. Woo. (2005). *TA program for personality development*, Daegu: Jungamsuwon.
- [12] K. J. Kim. (2018). A conversation training program that combines reason and sensitivity - Using the P-A-C technique of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of*

-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49-155.
- [13] Bass.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Y: Free press.
- [14] J. Y. Hwang. (2011). *The Self-reflection scale development and a path model of self-reflection to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15] S. Y. Pak. (2016).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 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45-355.
DOI : 10.14400/JDC.2016.14.12.345
- [16] G. H. Song. (2014). A study on the ego state types of teacher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77-95.
DOI : 10.14699/kbiblia.2014.25.2.077
- [17] H. T. Park. (1996).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s of the nurse administrators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1), 228-241.
- [18] S. Y. Lee & S. Y. Pak. (2016). The Impacts of nurses' psycho-soci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on patient car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461-470.
DOI : 10.11111/jkana.2016.22.5.461
- [19] M. K. Cho.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and self-reflection in the convergence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305-313.
- [20] Dusay, J. (1977). *Egograms*, NY: Harper & Row.
- [21] J. Y. Lee. (2012). The effect of ego states and life positions on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2), 113-122.
- [22] J. S. Won. (2002). Study on the ego states and coping styl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4), 608-619.
- [23] S. Lee. (2003). A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 to improve nursing college student's ego state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2(3), 279-286.
- [24] K. H. Chung & C. S. Lee. (1999). A study on nurses' human relationships and ego states displayed by ego gram.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s*, 4(1), 107-125.
- [25] K. J. Lee & S. Lee. (1992). The study of nurse's ego states on the basis of transactional analysis. *Kor Res Inst Better Living*, 50(1), 195-205.
- [26] S. Lee.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 of ego-state and interpersonal attitude in transactional analysi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9(2), 265-276.
- [27] S. H. Sim & S. Y. Ahn. (2015). The Influence of Ego State and Interpersonal Skil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2), 269-275.
DOI : 10.14400/JDC.2015.13.12.269
- [28] T. Y. Lee & M. H. Kim. (2013). Differences in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Teacher Efficacy, and Ego State according to Grade Level. *Journal of Korean Academy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7(6), 99-117.
- [29] J. Sadler. (2003). A pilot study to measure the caring efficac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4(6), 295-299.
- [30] C. Coates. (1997). The Caring Efficacy Scale: Nurses' self-reports of caring in practice settings. *Advanced Practice Nursing Quarterly*, 3(1), 53-59.
- [31] B. M. Yu, J. C. Jeon & H. J. Park. (2013). The Effects on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type of Reflec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9(4), 837-859.
- [32] M. J. Kim & S. I. Jang. (2015). Effect of Transformational & Transac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n Academic of Human Resource and Management*, 22(1), 25-43.
- [33] M. Y. Lee & K. H. Kim. (2012). Influence of head nurs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staff nurse's psychological well-being, stress and somat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2), 166-175.
DOI : 10.11111/jkana.2012.18.2.166
- [34] M. Mu, Y. C. Lee, H. C. Duan.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loyee creativ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117-128.
DOI : 10.14400/JDC.2018.16.8.117

박 소 영(Pak, So Young)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 2015년 2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리더십 및 참여적 의사결정, 간호윤리, 간호교육
- E-Mail : 09525@shinhan.ac.kr